

영산강 죽산보 '해체vs반대' 해결 모색

나주시 오늘 토론회...손금주 의원 주최

경제적 비용·농업용수 부족 대응 등 논의

정부가 오는 6월 확정할 예정인 '영산강 죽산보' 전면 해체와 관련된 찬·반 여론 청취와 올바른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무소속 손금주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13일 오전 나주시민회관에서 '죽산보 문제, 올바른 해결방안은?'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손 의원이 주최하고 환경부가 주관하는 토론회에는 열경섭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 평가총괄팀장, 김동렬 영산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장, 이화영 전남대 교수, 김석봉 농어촌공사 나주시지사, 김창원 영산강발전연구소장 등이 참석해 열

린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보의 유지와 해체에 따른 경제적 비용 평가를 비롯해 농업용수 부족 대응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죽산보의 올바른 해결 방안을 찾는다는 취지다.

나주 지역에서는 지난달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건설된 영산강 죽산보를 해체한다'는 제안 발표 이후 찬·반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보 해체 제안 이후 건설에만 수천억원이 소요된 보(狀)를 몇 백억원의 돈을 들여 허무는 것은 예산낭비라는 지적과 유지·관리비, 수질 관리 등을 위해서는 보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부딪히면서 지역 주민들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자치단체와 농민들은 농업용수 확보 방안이 선행돼야 하고, 지역에 미칠 경제적 손실 비용 등이 포함된 객관적인 환경영향 평가 실시 등을 통해 보 해체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손금주 의원은 "4대강 사업 당시

막무가내 식 공사 진행으로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고통을 받고, 혈세가 낭비됐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며 "보 해체에 대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들여 연구와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동구, 찾아가는 동 순회 치매검진 역점 추진

광주 동구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동 순회 치매검진'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동 순회 치매검진'은 동구 보건소 역점사업 중 하나로 2017년에 3,007명, 지난해에는 1,176명(75세 이상 고위험군 대상)이 검진을 받았다.

올해 순회검진은 주민등록상 동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4월 30일까지 총 13회에 걸쳐 추진된다. 동별 지정된 장소에서 △치매산별검사 △구강상태점검 △심방세동 △혈압측정 등을 무료로 실시한다.

서구, 자활근로사업 인턴형 일자리 발굴·지원

광주 서구가 인턴형 자활근로 사업의 역점적 추진을 위해 자활기업 및 사회적 협동조합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11일 자활근로자를 본격 배치했다. 서구는 올해부터 시작된 인턴형 자활근로 사업을 위해 작년 12월 인턴형 자활근로사업 참여업체 모집을 통해 3개 기업을 선정하고, 저소득층 주민 5명 채용을 목표로 참여 주민을 발굴해왔다. 그리고 지난 4월과 8일 청소년사 협동조합 및 (주)빛고을건설과 위탁계약을 맺고 자활근로자 각 1명씩을 기업에 배치한 것.

인턴형 자활근로자 채용 기업은 6개월 인턴비를 정부에서 지원받게 되며 6개월 후에는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 이후 인턴비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하게 된다.

남구, 저소득 가정·복지시설 LED 무상 교체

광주 남구는 12일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저소득 가정과 사회복지시설 내 에너지 절감과 전기안전을 위해 노후화된 조명기구를 고효율 기저체인 LED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남구는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100세대와 사회복지시설 25개소를 선정, 고효율 LED를 무상 교체할 방침이다.

선정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경우 지난해 LED 교체 지원을 신청했으나 접수 마감으로 인해 LED로 교체를 하지 못한 세대가 가장 우선적으로 선발되며, 장애인 및 한부모, 소년·소년가정, 독거노인 세대 등에 우선 순위가 주어진다.

문인 북구청장, 해빙기 안전점검 나서

문인 북구청장이 해빙기 재난 취약지역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에 나섰다.

광주 북구는 "문인 북구청장이 12일 '두암동 급경사지 복구공사' 현장을 방문해 안전모니터봉사단 북구지회, 지역자원방재단 등 관계자와 주민들과 함께 안전점검을 하고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방문 현장은 지난해 8월 폭우로 인한 경사면 일부가 유실돼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복구공사를 실시했던 지역이다.

북구는 재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3월 31일까지 급경사지, 건설공사장 등 재난 취약지역 총 54개소를 대상으로 사고위험 발생요인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광산구, 수원·하남동에 구립어린이집 개원

12일 광주 광산구가 구립 장자울 어린이집과, 꿈여울 어린이집 개원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두 구립어린이집은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광산구가 신규 설치한 곳.

장자울 어린이집은 수원동 장자울마을 아파트 휴먼시아 4단지 관리동에 자리를 잡았다. 약 120㎡ 면적에 보육실 3개, 유희실 1개, 조리실 1개 등을 갖추고, 27명의 아이들을 원장·보육교사·조리원 등 교직원 6명이 돌본다. 꿈여울 어린이집은 하남동 산정빛여울채 아파트 관리동에 있다. 약 215㎡ 면적에 보육실 4개, 유희실 1개, 조리실 1개 등을 갖추고 30명의 아이들을 교직원 6명이 보살핀다.

임형택 기자

광주시 70세 이상 운전면허증 반납시 인센티브

광주시는 올 하반기(7~12월)부터 70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할 경우 교통카드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기로 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교통

사고 사망자 75명 중 57%인 43명이 65세 이상 고령자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이를 줄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인지력과 순발력

위험이 높은 지역을 조사해 노인 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해당 구역에 안전표지판과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보강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노인다중이용시설 주변 교차로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치고 경로당과 폐지 좁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통안전교육도 실시한다.

송상진 광주시 교통건설국장은 "광주지역은 지난해 교통사고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줄었는데도 65세 이상 고령자의 교통사고는 증가했다"며 "고령자 교통사고예방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전국 최상위 교통안전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대책 추진

노인교통사고 사망자 전체 57%

광주시는 12일 급증하는 노인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받고 있는 적성검사를 65~74세는 5년에서 3년으로, 75세 이상은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광주시는 4월까지 자치구, 경찰청과 합동으로 고령자 교통사고

이용섭 광주시장 "한전 배구단 유치 적극 지원"

간부회의서 유치의향서 제출 지시

이용섭 광주시장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한국전력 배구단 광주 유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 시장은 12일 간부회의에서 "한전 배구단 유치와 교육통합본부장, 초고층 주상복합건물 규제,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광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의원들이 좋은 제언을 했다"며 "적극 시정에 반영할 것

이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한전 배구단 유치는 한전 럭비단 전남 이전, 한국도로공사 여자배구단 김천 이전 등의 사례도 있는 만큼 현재 수원을 연고로 하고 있는 한전배구단을 광주로 이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시장은 문화관광체육실을 통해 한전배구단 유치의향서를 한전측에 제출하도록 했으며 행정 차원의 지원방안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오는 4월 수원 연고지 계약 종료

를 앞두고 한전 빅스톱 프로배구단의 광주 이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까지 본격적인 유치전에 뛰어들면서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이 시장은 '주상복합건물 신축과 유통대기업 쇼핑몰 출점' 문제에 대해 현행 법규상 규제의 한계가 있으나 주변 소상공인 보호, 교통, 도시미관 등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고 지역경제 순환이 저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했다.



또 전두환씨 사지명예훼손 혐의 재판과 관련해 이 시장은 "전두환이 역사의 심판대 앞에 다시 섰으나 반성의 기회도, 단 한마디의 사죄도 없었다"며 "공직자들이 오월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서은홍 기자

한정승인공고

사건번호: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19년 단 10040 상속한정승인
사망자: 박태석(630616-1573315)
최후주소: 여수시 신기남길 33(신기동)
등록기준지: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104번지

위 망 박태석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 제 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 제 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19년 3월 13일

공고인: 박수미
주소: 여수시 미평3길 52, 307호(미평동)
한정승인수리일: 2019년 3월 10일
공고기간: 2019. 3. 13~ 2019. 5. 13

고객 감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을석 세무회계사무소

- 법인 설립
- 기장 대리
- 양도상속증여
- 건설면허신청
- 기업진단
- 외부감사

광주시 서구 매일동 948 산업용재유동센터 30동 217호(풍암지구)
TEL: 062-603-1060 FAX: 062-603-1062
H-P: 011-641-6152



월드노무법인

World Labour Corporation

- ▶ 노동법 기업컨설팅 ▶ 산재업무대리
- ▶ 급여체계 정비사 ▶ 징계(해고)자문
- ▶ 4대보험 무료대행 ▶ 노동부 지원금

노동부 옴부즈만위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광주·목포 노동청 전문위원

대표/공인노무사 박정태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04 밀알신탁 5층

Tel : 062)512-0336 H·P : 010-3624-0338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세상의 뉴스를 아낌없이...

湖南新聞이 지역공감·미래창조·정론직필의 나무를 키우겠습니다.

• 구독신청·광고문의: 062-224-5800

• 기사제보·독자투고

e-mail: ihonam@naver.com
F a x : 062-222-5548
홈페이지: www.ihonam.com

